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의 본질적내용

윤 영 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국가의 예산자금은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실현하는데 지출하는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주의국가예산자금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것이 기본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367페이지)

재정지출에 관한 리론은 주체의 재정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의 본질적내용은 무엇보다먼저 나라살림살이를 위한 국가예산자금지출에 관한 리론이다.

국가예산자금지출리론은 국가에 중앙집중적으로 동원된 화폐자금을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분배하는것과 관련된 재정리론으로서 재정수입론과 함께 주체의 재정리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측면을 가진다. 재정수입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있게 되며 재정지출규모를 규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수입은 재정지출의 전제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떠나서 재정수입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국가의 재정수입이 아무리 원만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정지출에 대한 과학리론적해명이 옳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재정이 자기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국가예산지출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국가예산자금을 분배리용하는 재정활동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정확히 하며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관한 리론에서는 재정이 어디까지나 국가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나온 범주라는데로부터 국가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지출문제를 전개하였으며 따라서 재정지출을 순수 국가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아왔다.

재정이 출현하여 발전하여오는 전력사적기간에 재정지출은 지배계급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관리수단으로만 복무하여왔으며 그 규모는 체계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재정지출은 1870년대이후 영국, 도이쉴란드,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주요자본주의국가들에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1890년대이후 더욱 우심하게 나타났다.

현대제국주의단계에 와서는 국가관리를 실현한다는 명목밑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놓고 군사비와 행정관리비 등 국가관리를 위한 예산지출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그것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거나 적자공채를 수많은 발행하는 방법으로 국가관리경비를 팽창시켜왔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재정지출문제를 단순히 국가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것은 인민을 위한 재정으로서의 사회주의재정의 본성에 맞지 않게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사회주의재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인민적인 재정으로 된다. 사회주의재정의 인민적성격은 재정지출문제를 단순히 국가관리를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인민적성격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불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재정지출리론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지출문제를 해명한것은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의 특징을 이룬다.

주체의 재정리론은 국가예산지출의 기본에 관한 문제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밝혔다.

국가예산지출에서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예산자금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겠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예산자금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는가 다시말하여 국가예산자금지출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국가예산의 성격을 규정한다.

국가가 재정지출의 기본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해당 사회의 국가예산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인민적인 재정으로 될수도 있고 착취계급을 위한 반인민적인 재정으로 될수도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재정지출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주의국가예산이 인민적인 재정으로 될수 없다.

국가예산자금지출의 기본에 관한 문제는 사회제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

국소수 독점자본가계급이 주인노릇을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자금지출의 기본은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실현하는데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가활동을 보장한다는 미명밑에 군사비에 가장 많은 국가예산자금을 충당하고있으며 국가관리기구의 유지운영과 관련한 일반행정비를 대폭 증대시키고있다.

력사적으로 자본주의국가예산자금은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정책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어 지출되어왔다. 특히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식민지재분할과 독점적리유희득을 위한 제국주의국가들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하여 자본주의국가예산자금의 군사비로의 지출은 보다 팽창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부르조아지들은 군사비팽창에 의한 자본주의국가경비의 팽창이 국가관리를 위한 《경비팽창의 법칙》이며 국가재정활동의 필연적결과라고 하고있다.

주체의 재정리론은 사회주의제도에서 국가예산자금지출의 기본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국가예산지출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피는 인민의 락원으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지출이라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자금지출은 인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지출이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지출은 호상작용하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생활을 자금적으로 확고히 보장한다.

국가예산지출의 기본에 관한 주체의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자본주의국가예산의 반인민적성격과 사회주의예산의 인민적성격을 가를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징표가 명시되게 되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의 본질적내용은 다음으로 국가예산지출구성에 대한 리론이다.

국가예산지출구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에 맞게 지출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지출구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해당 국가예산이 국가행정관리를 위한 경비지출을 기본으로 하는 예산으로 될수도 있고 인민적인 예산으로도 될수 있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을 강화하면서도 사회주의국가의 관리적성격도 원만히 보장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예산지출구성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였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사회주의국가예산지출이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 국가관리 및 국방에 대한 지출로 이루어진다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혔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우선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이 국가예산지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된다는데 대하여 새롭게 밝혔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은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확대발전시키며 국민소득을 장성시키기 위한 물질적조건보장에 돌려지는 지출로서 그것은 기본건설과 대보수에 대한 지출, 인민경제사업비에 대한 지출로 이루어진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은 국가예산지출의 인민적성격을 반영한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의 인민적성격은 그의 생산적성격과 관련된다.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예산지출의 생산적성격은 사회주의적생산을 확대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뿐아니라 국민소득장성으로 국가예산수입을 늘여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자금지출을 더욱 늘일수 있게 한다. 결국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것으로 하여 국가예산지출의 인민적성격을 보다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또한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이 국가예산지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밝혔다.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은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지출이다.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과는 달리 소비적성격의 국가예산자금지출이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에 의한 분배와 사회공동적소비를 통한 인민적시책을 옳게 결합시킬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을 인민적성격에 맞게 관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사회공동적수요에 돌려지는 인민적시책비지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의 인민적성격은 그 지출내용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교육사업비와 보건사업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는 인민적시책과 직접 관련된 예산자금지출이다. 교육사업비와 보건사업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는 근로자들이 실지 일한 노동의 량과 질에는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골고루 돌려지는 자금지출로서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게 향상시키는데 복무한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과 과도적특성으로부터 노동에 의한 분배를 실현하면서도 인민적시책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는 과학적분석에 기초하

여 인민적시책비가 사회주의국가예산자금지출의 중요구성요소로 된다는데 대하여 새롭게 밝혔다.

인민적시책비가 국가예산자금지출의 중요구성부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집단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에 맞게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켜나갈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또한 국가관리 및 국방에 대한 지출이 국가예산지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관리비는 국가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자면 각급 주권기관들과 행정경제기관, 인민보안 및 사법검찰기관들의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을 통하여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이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되지만 생산 영역에 지출되는 비용과는 달리 소비적성격의 자금지출인것만큼 그것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밝혔다.

국방에 대한 지출은 사회주의국가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지출로서 사회주의국가예산지출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국방에 대한 지출이 철저히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기 위한 방위적성격을 띤다는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혔다.

국가예산지출구성에 관한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재정의 사명과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을 다같이 반영하고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재정지출리론이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과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이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지출이라면 국가관리 및 국방에 대한 지출은 국가관리수단으로서의 재정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과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을 다같이 국가예산지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규정한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축적과 소비와의 지출균형관계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국가예산지출구성에 관한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현시기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재정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한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합리적균형보장은 국가예산자금을 중공업을 빨리 추켜세우고 더욱 발전시켜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은 국가예산지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의 재정지출리론이 밝힌 국가예산지출에 대한 리론은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성격과 재정의 사명에 대한 정확한 해명에 기초하여 밝힌 사람중심의 주체적이고 인민적인 재정지출리론이며 과학적인 예산지출리론이다.